

■ 해외동향

日 重電機업계, 동남아 現地 生産 확대

일본의 중견 중전기업체들이 동남아에서 중전기 현지생산을 가속화 할 움직임이다. '98년부터 메이덴샤(明電舎)가 싱가포르·태국에서 배전반 생산에 나서는 것을 비롯 다카오가(高岳)제작소도 베트남에서 변압기를 생산한다.

이들 업체가 통화폭락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에서 이처럼 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송배전망 정비에 잇따라 중전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이덴샤는 자회사 메이덴싱가포르를 통해 1월

부터 싱가포르에서 24킬로볼트 이하의 소형 배전반과 진공차단기 생산을 개시한다. 또한 태국에서도 2월부터 현지 내수용으로 24킬로볼트 이하의 배전반을 제조한다.

하노이 근교에 베트남 국영기업과 합작회사 '비나다카오카'를 설립한 다카오카제작소도 2월부터 소형 변압기 생산에 착수한다. 다카오카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단로기·배전반 등도 현지에서 생산, 매출규모를 5년후엔 약 20억엔으로 늘릴 계획이다.

日, 초전도 발전기의 안정성 확인

일본의 關西電力 종합기술연구소는 초전도 발전기와 SMES(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를 함께 가동시키는 실험을 하여 落雷事故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송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한편 전력을 저장하는 SMES를 도입하면 송전을 안정화시키는 현재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전도 발전기는 회전자의 코일에 초전도물질인 니오브티타늄을 사용했다. 섭씨 마이너스 269도로 냉각하여 저항을 제로로 하면 발전효율이 0.5~0.7% 향상된다.

SMES는 니오브 티타늄製 코일을 사용한 전력 저장장치로 21세기의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美, 전기모터 수요 증가율 둔화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97년도 전기 모터(Generator 포함) 생산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약 117억달러로 추정집계 됐으며, '98년엔 3.9% 증가한 122억달러로 완만한 상승률이 예상 되고 있다.

미국의 전기모터 수요는 '97년 현재 125억달러 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94년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 후 지속적인 증가율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기모터의 생산 및 수요는 주요 소비센터 인 가전제품 산업의 수요정체 전망, 기계류 산업 의 수요 증가율 둔화 등의 정체 요인이 있는 반면, 고에너지 효율 제품의 수요 증가와 산업용 제품의 교체수요 증가 예상 등으로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 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96년 전기모터의 수출은 11억7천만달 러로 전년대비 0.4%의 미미한 증가세를 기록했으 나 '97년 3/4분기까지 실적은 대부분의 주요 수출 국 수출이 호조세로 반전,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미국의 전기모터 수입은 '96년 25억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정체상태를 보였으나 '97년 3/4분기 현 재 다소 호전돼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한 20 억달러를 기록했다.

● 수입실적(HS 8501)

(단위 : US\$ 백만, %)

국 별	1995	1996	'97.1~9
멕시코	668	761	710
일본	527	425	289
캐나다	296	271	198
중국	213	210	176
독일	186	181	140
영국	85	87	69
태국	61	67	51
프랑스	83	64	36
대만	62	64	45
한국	52	59	60
총계	2,520	2,515	2,035

[자료 : WTA]

中, 대형原電 건설 박차

중국은 총 6백60만kW의 발전용량을 갖게 될 4개의 대형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중국 核工業 總公司(CNCC)가 최근 밝혔 다.

CNCC는 지난해 5월과 6월 저장성의 칭산(秦 山) 원전과 광둥성의 링가오원전 등 2단계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이어 올 연말에는 3단 계 원전 프로젝트에 따라 칭산(秦山) 원전에 70 만kW의 발전용량을 각각 갖춘 2기의 원자로 건

설을 시작한다. 또 '99년에는 장수성에 1백만kW 의 발전용량을 갖는 원자로 2기가 설치될 리안운 강(連雲港) 원전 건설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CC의 副總經理도 『앞으로 3년간이 중국 원 전 발전에 중요한 해』라면서 이 기간동안 4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이라 고 말했다.

러시아, 중단기 원자력 에너지 수급계획 확정

러시아 정부는 오는 1998~2005년과 2010년까지의 자국 원자력 에너지 중단기 수급계획을 승인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빅토르 미하일로프 러시아 원자력부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러시아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올해의 21.2GW(212억W)에서 오는 2000년까지 24.24GW(242억4,000만W)로 확장한 뒤 2005년엔 26.88GW(268억8,000만W), 2010년엔 27.56~29.2GW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시간당 전력생산도 오는 2000년 1,300억kW, 2010년엔 1,700억kW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 고양 및 사용기한 연장 ▲칼리닌그라드, 쿠르스, 로스토프지역에서 진행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완공 ▲남부우랄지역에 무기용 플라토늄 연소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차세대 원자료를 갖춘 발전소 건설 등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 한국산 제품에 대한 GSP 공여종결 결정

EU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산 제품에 대한 GSP 공여를 '98. 5. 1부로 종료기로 결정하였다.

EU는 '95. 1 및 '97. 1 공산품 및 농수산물 각각에 대한 신GSP 제도를 도입, 선진수혜국의 단계적 졸업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을 선진수혜국으로 분류, GSP 혜택을 전면 종료하되

적용기간을 부여, 종료시점을 당초의 '98. 1. 1에서, '98. 5. 1로 변경하여 시행기로 결정했다.

우리 관련 수출업체들은 '98. 5. 1 GSP 수혜종료 이전에 조기 선적 등의 방법으로 GSP 혜택을 최대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日電線업체, 동남아시아 시장 전략 수정

히타치전선·스미토모전기공업·쇼와전선·미쓰비시전선 등 일본의 대형 전선메이커들이 동남

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로 인한 시장혼란에 따라 동남아시아시장 전략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고 일본의 화학공업일보가 업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각 메이커의 움직임은 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속행하기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생산효율을 감안한 생산전략을 전개하겠다는 곳이 있는 등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신중한 현지진출 전략으로 수정

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전산업계내에서는 이번의 통화위기로 인한 시장혼란을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어 좁아진 현지시장에서의 경쟁은 일본 메이커간의 수주전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ISO 규격 다국간 상호 승인 시스템 가동 전망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의 다국간 상호승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일본적합성인정협회(JAB) 등 각국의 인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국제인정기관(IAF)의 총회가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중국의 광주시에서 개최되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17개국의 16개 인정기관이 상호승인제도의 협정에 조인했다.

당초는 국제품질관리 보증규격인 'ISO 9000 시

리즈'부터 시작되지만 국제환경관리 감사규격 'ISO 14000 시리즈'에 관해서도 동 협정을 기초로 빠른 단계에서 실시한다.

상호승인제도가 가동하게 되면 동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의 인정기관이 인정한 심사등록기관에서 발효하는 ISO 규격의 인증이 상호간에 인정된다.

